

# 오리산업 선진국 연수를 다녀와서



김 준 량  
주원산오리 대리

지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오리협회 주최로 진행된 2012년 오리산업 선진국 연수가 있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오리관련 산업을 둘러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쌀쌀한 바람과 함께 연수단의 집합장소였던 인천공항으로 향할 때부터 큰 기대와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책이나 TV로만 접하던 나라로 개인적으로 방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고, 유럽의 오리산업과 세계적인 축산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연수단과의 만남은 처음에 서먹했지만 비행기 탑승 전 점심식사에서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 수 있었고,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오리관련 업체를 대표해서 참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연수단은 10시간을 훌쩍 넘는 비행시간을 겪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독일 베를린 공항에 도

착했다. 우리는 첫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고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호텔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다음날부터 연수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연수의 일정은 크게 독일의 닭 생산 및 달걀 판매 회사인 SVB와 LANDKOST 방문,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산박람회 유로티어(EUROTIER 2012) 참관, 독일의 육제품 유통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형마트 방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소규모 오리 농장 방문이었다.

처음 방문한 SVB에서는 연수단을 위해 독일의 가금 산업과 회사의 역사 및 현재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었다. 동독시절에 집단 농장이었던 이곳은 통일 후 일하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회사로 건립하였고, 현재 200만수 사육 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약 6억 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었다. 여기서 생산된 달걀은 일반가정에 52%, 달걀 가공산업에(케익, 면 등) 48% 정도 공급되며, 연간 독일 달걀

사용량은 약 160억 개라고 한다.

한편, 현재 독일 및 유럽 축산업의 이슈는 EU에서 재정한 동물복지법 강화에 의한 유기농 사육, 친환경 제품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도 케이지에 사육하는 닭은 없었으며 완전방목과 부분방목 등의 방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었다. 닭 사육장 및 달걀을 포장하는 장소도 견학을 했지만 시스템이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독일은 오리 생산량이 거의 없고 폴란드에서 대부분 수입한다고 한다. 이유는 폴란드에서 저가로 오리를 생산 및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오리 수요도 닭 및 거위, 칠면조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은 수입한 오리를 가공하는 정도라고 한다.

오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오리 관련 농가나 회사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유럽 축산 사육의 트렌드 및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독일의 오리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연수를 온 이유는 사실상 세계적인 축산 박람회인 유로티어(EUROTIER 2012)에 참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우선, 박람회장으로 입장하는 순간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온 북적이는 사람들과 거대한 규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필자는 올해 우리나라 대전에서 열린 축산 박람회에 다녀왔었다. 그때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로티어의 규모를 보고는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박람회관이 1개도 아니고 25개나 있었고 참가한 업체 및 방문자 수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우선, 가금류관에서 급수, 급이라인 / 자동 포획기 / 계근시스템 / 온도, 단열 관련 기자재(열풍기, 단열재 등), 부화기 관련 기자재 등을 관람했다. 그리고 오리 관련 부스를 찾아봤지만 양계 쪽에 비해 그 수가 너무 부족했음을 느꼈다. 관람 중, 체리밸리와 그리무드 부스를 발견하고는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럽의 오리 시장산업 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해진 시간 관계로 가금류관과 사료관련관 정도만 관람 하였는데 25개관을 다 둘러 보려면 박람회 기간인 4일 내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큰 규모였다.

참관 도중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에서도 축산 박람회와 개최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연수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 소규모 오리 농장 방문이었다. 연수 참가자 모두 오리업계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실제 오리 농장을 방문했을 때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

우리가 방문한 농장은 페킨종 오리 5,000수를 사육하는 젊은 부부의 농가였다. 토마스팜이라는 회사에서 800원 가량에 병아리를 사오고, 6주 동안 키워서 다시 토마스팜에 납품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위탁 사육시스템과 비슷하며 병아리 가격도 거의 유사했다. 단, 우리 회사의 오리사육 시스템과 다른 점은 그곳에서는 축사 바닥에 밀짚을 깐다는 점과 1평방미터에 7마리를 사육한다는 점, 사료를 직접 사서 쓴다는 점이였다.

그곳의 축사에는 니플 급수, 형광등, 자동 급이, 우레탄폼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환기시스템으로는 여름철에 터널환기, 겨울철에 천장환기를 사용한다고 했다. 사료 급이량은 하루 250g, 사료의 재료는 식물성 복합재료이며, 전체적으로 마리당 약 7kg를 급이 하고 있었다. 수익측면에서도 마리당 1,000원 안팎으로 우리 회사와 비슷했지만 그곳은 사육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도 우리가 방문한 것처럼 연수, 관광, 오리 음식 개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더 크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었다. 우리도 한국문화에 맞게 오리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오리농가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축사를 둘러보면서, 농장주가 직접 그곳의 훈제오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어 네덜란드 오리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훈제오리에 비해 너무 짜고 질겨서 맛이 별로였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 오리농장의 시스템은 한국의 시스템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 프로그램 개발측면을 제외하면 오히려 시설이나 규모, 사육 노하우 면에서 한국이 더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네덜란드의 대규모 농장이 아닌 소규모 농장을 방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 큰 오리 농장을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나라의 오리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 오리 산업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연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하면서 잠깐이나마 독일과 네덜란드의 다른 문화도 접해볼 수 있었는

데 독일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나라였다.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독일은 시끄럽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그만큼 활기와 재미가 부족했다. 음식도 전반적으로 짠 편이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국제도시답게 시끌벅적했으며 외국인들도 많았고 밤늦게까지 여러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독일에 비해 역동적이고 쾌활한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나라 모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50센트(약 700~800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점과 식당에서도 물을 사먹어야 하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와의 문화 차이를 느꼈고, 무엇보다 산이 없고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국토는 축산 쪽에서 볼 때 굉장히 부러운 측면이었다.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자연환경에 맞춰 축산업을 발달시켜왔다는 점 등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처음 기대보다 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산업을 들여다 볼 기회가 적었던 점이 약간은 아쉬웠지만, 모든 연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며 정말 유익하고 뜻 깊은 연수였다는 생각을 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야가 넓어졌음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오리산업에도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끝으로 연수의 기회를 준 주원산오리가족여러분과 한국오리협회 직원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한다.